


12.28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기도회



일 시: 2016년 2월 29일(월) 오전 11시

장 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주 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주 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12.28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기도회’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한,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연대하려 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폭력 앞에 고통당했던 이들과 가족,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 인도: 최소영 목사(NCKK 여성위원회 위원장)

• 예배로의 초대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 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 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디모데후서 4:1-5)

• 공동기도 / 다같이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전능하신 손아래에서 온 인류가 평화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와 화해의 책임, 권리를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이 땅에 온갖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죄에 매여 평화하지 못했고 화해하지 못했으며, 전쟁과 분열, 갈등을 일삼으며 욕심껏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정의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정의의 하나님, 이 시간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열망과 고백, 헌신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사랑 없이 울리는 팽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울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곳에 참여한 이들과 스쳐지나가는 이들에게도 평화를 허락하시고 평화 없음에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매주 일본군‘위안부’의 삶을 고백하며 아픔을 드러내는 할머니들과 이들의 인권과 정의실현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을 돌보아 주소서. 이 자리가 더 이상 피와 눈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선 이곳에 자유, 정의, 평화가 샘솟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깃든 참된 평화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세상 곳곳에 퍼지게 하소서.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 송 /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1.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주시리라
 2.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써 같은 심령에 힘을 얻고
 3.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아침 해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이 위로 받네



• 성경봉독 / 이미화 사관(NCCK 여성위원회), 이쁜이 사제(NCCK 여성위원회)

〈누가복음 12장 2~5절〉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육신을 죽여도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느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로마서 2장 6~10절〉 하느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을 행사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궁지에 몰리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평화를 위한 기도 / 김혜숙 목사(NCCK 부회장)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수요시위의 정신을 이어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한결같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침략국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일본은 여전히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고 후안무치의 얼굴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자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우리 정부도 지난 12.28합의를 해 다시금 할머니들과 우리의 마음에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습니다. 광복 70년을 맞도록 우리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주지 못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위로해주시고,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당한 일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집안의 빚을 대신 갚아보려는 효심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만주로 일본으로 끌려간 꽃다운 십대의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의 전범들은 그리고 그런 전범들의 후예인 일본은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요 피해자들에게 천만분의 일이라도 사죄하는 길이며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로부터 용서받는 길일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악에 물든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잃고 억울하게 당한 우리 할머니들과 이들의 인권과 명예를 위해 힘쓰는 이 땅의 수많은 의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 땅에 정의로운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함께) 하나님, 당신의 은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 봉헌 / 특송 (청년외침)



• 일본군 ‘위안부’의 시편 2 / 지성은(종합예술인)

일본군 성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애타는 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괴로움을 아뢰나이다.

우리가 원통함을 못 이겨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보살피시나이다. 일본정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막으려고 우리의 투쟁 길에 덫을 놓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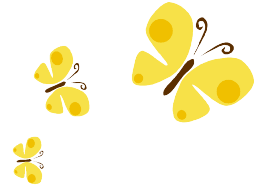
오른쪽을 살펴보았나이다. 왼쪽을 살펴보았나이다. 나물 캐다 붙잡혔을 때 우리를 구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이다. 도망 길마저 모두 막힌 산비탈 양지바른 언덕에서 ‘어머니’ 소리쳤지만 들려오던 소리 ‘어머니’하는 산울림뿐이었나이다.

하나님, 당신 향하여 소리치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

여자 잡는 인간사냥꾼들에게 머리채 잡힌 채 끌려가 삼단 같은 머리칼 싹둑 잘릴 때 우리 생명의 뿌리도 잘려나가 이렇게 빈껍데기만 남았나이다. 애꿎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어주소서.

‘위안부’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살려 내주소서. 일본정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전쟁범죄 사죄하고 법적배상 시행하면 그때 우리에게 내려주실 당신 은혜로 여성 인권사에 이정표 세우고 한바탕 큰 춤 추리이다.

(잠시 묵상합니다.)



- 평화의 기도 / 김영진 장로(NCKK 국제위원회 위원장)

- 찬 송 / 393장 오 신실 하신 주

1. 오신실 하신 주 내아버 지여 늘함께 계시니 두 렘 없네
 2.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달 별들도 다 주의 것
 3. 내죄를 사하여 안위하 시고 주친히 오셔서 인 도 하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 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갈 내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 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내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 복을 내리시 네

후렴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 시니 오신실 하신 주 나의 구 주

- 축도 / 김은섭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회계)

12.28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연대와 나눔’

인 사 김영주 목사(NCCK 총무)

현장 발언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 박은혜(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중)

소식 나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근황

연대 발언 인금란 목사(NCCK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대 독 이재성 사관(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재인대한기독교회(KCCJ)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요구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퍼포먼스 신미숙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색종이에 평화의 메시지를 적고 비행기 모양으로 접습니다.
이것을 평화의 소녀상 옆에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자유롭게 날리셔도 됩니다.(이후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 알려드립니다! ◀

1.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끝까지 연대하며 함께 행동합니다.

* 1인 1만원 후원해주세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현장, 계좌 모금 가능)
계좌) 신한은행 100-012-602907(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2. 순서를 맡아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안부’문제에 관한 일한외상회담에 대한 항의 성명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전도서 4 장 1 절)

우리 전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08년에 조선인 청년유학생들의 모임을 모체로 설립된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 속한 여성 조직입니다. 차별과 억압, 빈곤과 전후의 혼란 가운데에서 평화로운 세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발전을 바라고 격려해온 재일코리아인 1세 어머니들의 신앙을 계승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 일한 외상이 공동회견을 열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을 보며 강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열거합니다.

1. 이번 합의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며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피해자와의 접촉은 일절 없었습니다. 사죄를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로 전하고, 일방적인 합의 내용을 한국외무성이 피해자 할머니에게 전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인다.’라고 할머니 자신들이 표현한 바와 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행위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을 위해 10억엔 규모의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한다고 하고 그 자금을 일본 정부가 준비한다고 합니다만 나라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한국 측의 재단에 각금하는 것은 배상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교묘한 바꿔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국가 책임과 사죄, 거기에 응당한 배상을 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3. 평화의 비(소녀상)은 국가가 설치한 것이 아니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만들어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본 정부가 요구할 문제도 아니며 한국 정부가 응할 문제도 아닙니다.
4. 이번의 합의가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담겨진 내용이라면 이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역사 교과서에 실고, 같은 과오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어두운 역사의 유산을 통해 배우지 않고,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정치가들의 폭언이 없어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의 점에서 이번 ‘합의’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조국에서 화해와 참된 해결과는 동떨어진 이러한 타결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항의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참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의의 소리를 높이며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2월 5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김영숙
총무 박영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한 성명

우리는 1980년대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구하면서 단 한 사람의 지문 날인 거부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외국인 등록법 개정 운동"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개정 운동을 통해 필연적으로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된 지금 우리는 "외국인은 끓여 먹든지 구워 먹든지 우리 마음대로"라는 일본 정부의 혈통주의에 의한 이민족 배제의 논리와 투쟁하면서 보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 장관은 한국 서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측은 ① 군의 관여를 인정하며, 다수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②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하고,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③ 이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한국 측은 ① 이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며,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정식 명칭은 '평화의 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향후 양국 모두는 국제 사회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이상,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발췌)

이웃나라 동지이면서도 오랫동안 정상회담을 열지 않은 요인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문서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돌연한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는 그 부실함에 아연질색과 동시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곧바로 피해당사자들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합의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독한 인권 침해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양국 간의 합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일 3개국에 의한 동아시아 안전보장 체제 강화를 주목적으로 한 정치결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전후 일관되게 과거사에 대해 책임 수용을 거부해 온 일본 정부의 자세가 한층 더 선명해졌으며, 아베 신조 총리 개인의 역사 인식과 역사에 대한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반전시킨 것 같은 밀어붙이기 식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는 철회와 새로운 교섭 재개를 요구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스스로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보며 잘못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2014년 6월에 8개국의 피해자와 지원자들은 "제12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협의해 채택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과 학자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모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공적 자료 529점이 함께 제출돼 있습니다. 김학순(金學順)씨의 고발 이후 25년여 동안 "전쟁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범죄자 처벌, 역사 교과서 기술, 추모비와 자료관 설립"을 요구해 온 피해 여성들의 호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불가역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2016년 1월 30일

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요구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 특별선언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나의 백성은 평화스런 보금자리에서, 고요한 분위기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이사야32:16-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일 외교장관의 2015년 12월 28일 합의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이하, 12.28합의)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12.28합의를 양국 간의 아픈 역사를 다시 왜곡한 일회적 정치행위로 규정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체결의 불충분하고 모호한 내용과 문안으로 인하여 ‘위안부’문제가 양국 간의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이번 12.28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봉인해 버리는 과오를 범했다. 이번 합의는 합의문조차 없는 변칙적 합의로서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고,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 한다”고 선언하는 등 국제관례를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합의였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12.28합의는 그 절차와 형식, 내용 모든 면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12.28합의 어디에서도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했다는 것과 위안소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 12.28합의는 국가의 공식사죄가 아닌 대독사과였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얻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일들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밝혀 법적인 배상을 거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준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스스로 폄훼한 것이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사고하는 역사인식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본다.

성서의 시편 기자는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마라.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34:12-14)”라고 기록하고 있다. 화해의 과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의 외침을 참회의 심정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들음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며 진실이 밝혀진다. 이러한 진실 위에서 회개 가능하고 법적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며 왜곡된 역사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다. 참으로

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반복되지 않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그러므로 본회는 양국 정부가 12.28합의를 통해 화해의 과정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짐을 선언한다.

1. 한국교회는 일본군‘위안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외침에 귀 기울일 것이며, 12.28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정의로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한국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한 권리임을 재확인 하며, 권리쟁취와 인권회복을 위해 피해자들 편에서 함께 할 것이다.
3. 한국교회는 일본정부에 진상규명과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관련자 처벌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4. 한국교회는 제2의 ‘위안부’가 역사에 재현되지 않도록 평화의 정신이 담긴 ‘평화의 소녀상’을 보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더불어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전개하는 1억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6. 한국교회는 침략전쟁 과정에서 약자인 여성에게 저질러진 반인륜적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차별, 성폭력을 거부하고, 인신매매가 없는 세상, 평화와 인권이 회복되는 세상을 위하여 모든 전쟁과 폭력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7. 한국교회는 위와 같은 입장이 관철되기까지 세계교회협의회, 시민사회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한·일 양국 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한·일 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는 곧 세계평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평화를 선포하고 희망의 대리자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자 선교적 과제임을 고백하면서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읽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다.

2016년 1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4회기 실행위원회

바위처럼

C Dm7 G C F G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 모진 비 바람이 몰아친 - 대

C F G C Em Am
 도 - 어떤 유혹 - 의 손길에도 흔들림없 는 바위

F G C Am Em
 처럼 살자꾸나 - 바람에 흔들리는 건

F C Am G
 - - 부리가 얹은 갈대일 뿐 - 대지

F G C Em Am F Dm7
 에 깊이 - 박힌 저 바위는 곧 세게 도 서 있으

G C Am7 F G
 리 -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않고 시련

C Am7 F G F G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해방 세상

C Em Am F G C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겸손하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입니다. “

(야고보서 3장 17~18절)

평화의 소녀상

“고향 꿈도 꿀 수 없는 어두운 날
문득 보이는 뒤란의 작은 소녀야
하얀 감꽃 주워들고 웃음 짓는 어찌면
나였을지도 모를 어린 소녀야
눈 뜰 수 없는 잔인한 날들 피로 물든
다 찢긴 치마 나의 몸
옥이 순이 분이 라는 그 이름들
이제 세상에 없지만 기억하노라.
단발머리 예뻐던 조선의 딸들이
눈비 맞으며 이곳에 함께 있노라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기억하노라 단발머리 소녀가 앉아 있노라”

